

2024 케냐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4차 중기계획(2023~2027) 발표 및 추진	6
나. 무역 활성화 추진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 및 수출 산업 육성	9
다. 대내외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 안정적 국정 운영 위한 노력	10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4
2. 시장 분석	22
가. 시장 특성	22
나. 교역	24
다. 투자	28
라. 프로젝트	32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4
가. 교역	34
나. 투자 진출	36
다. 협력 유망 분야	37

III 진출전략

1. PEST 분석	41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42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3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50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53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54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5

Chapter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글로벌 침체로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안정적 성장세는 유지 전망

- '23년은 집권 1년 차의 정국 불안과 금리 인상, 물가 상승에 따라 경제가 둔화되었지만 하반기부터 '24년까지 주요 지표 안정화 전망
 -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 물가 안정화, 재정 위기 해소 등으로 경제 전망치는 '23년 4.5%, '24년 5.2%, 이후 지속 5% 이상 유지가 예상됨
- '24년은 루토 정부가 불안했던 정국을 정리하고 집권 이후 첫 정책 자금을 반영한 '23/'24 예산이 추진되는 해로 농업, 제조업, ICT 등 산업 육성 목표
 - 농업 현대화, 제조업 육성, 디지털 혁신, 기후변화에 대대적 재정 투입 전망, 산업 현대화와 수출 장려를 통한 거시경제 체질 개선
 - 재정정책을 위한 세수 확보, 환율 불안, 주력 산업 침체 등 경제 불안 요인은 여전히 존재, 규제 완화 및 제도 개혁으로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 구	백만 명	45.4	46.5	47.6	48.69	49.8	50.92	52.06	53.22
명목GDP	십억 달러	82.04	92.2	100.38	100.67	110.35	115.99	118.13	121.48
1인당 명목GDP	달러	1,814.0	1,982.8	2,108.8	2,067.6	2,215.9	2,277.9	2,269.1	2,282.6
실질성장률	%	3.8	5.7	5.1	-0.3	7.5	4.5	4.5	5.2
실 업 륜	%	3.5	4.2	5.0	5.0	5.6	5.5	-	-
소비자물가상승률	%	-	4.7	5.9	5.3	6.1	7.7	7.9	5.8
재정수지(GDP대비)	%		-5.4	-5.2	-4.8	-5.5	-5.1	-4.9	-5.6
총수출	백만 달러	5,657	6,005	5,779	5,979	7,264	7,419	7,766	7,995
(對韓 수출)	"	16	20	15	14	18	34	26	-
총수입	"	16,423	17,295	17,053	15,318	19,423	19,123	19,532	20,313
(對韓 수입)	"	100	109	83	97	133	319	143	-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10,766	-11,289	-11,273	-9,339	-12,159	-11,704	-11,766	-12,318
경 상 수 지	"	-	-4,989	-5,258	-4,791	-6,055	-5,815	-5,353	-6,469
환율(연평균)	현지국/US\$	-	101.30	101.99	106.45	109.64	117.87	136.93	143.40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	0.032	-0.372	1.425	1.311	-0.492	-0.500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	7.678	4.699	4.263	4.633	3.936	7.042	-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IMF, Global Trade Atlas, EIU Country Report, World Bank

- ※ 제조업, 중소기업, ICT 산업 육성을 위한 중기 정책 집행
- ※ 수출 주도 성장을 통한 외환·재정 리스크 축소 및 산업 육성
- ※ 대내외 정치 안정화 도모로 동아프리카 지역 강국으로서 지위 강화

가. 4차 중기계획(2023~2027) 발표 및 추진

▣ 3차 중기계획 계승하여 제조업·중소기업·ICT 산업 육성

- 상향식 경제 모델 개편(Bottom-Up)을 위해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 효과가 큰 제조업·중소기업 기반의 경제성장 정책을 채택하고 4대 핵심 목표 유지

4차 중기계획, Bottom-Up 경제 모델

- * (4차 중기계획) '23~'27년 5년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식량 안보, △주거 개선, △제조업 성장, △의료보건 증진 등 4대 핵심 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
- * (Bottom-Up 경제 모델) 상향식 경제 모델로의 국가 성장 모델 변경을 통한 중산층 양성, 중진 국가 운영을 위해 △생활비 절감, △고용 창출, △투자 및 생산 장려, △공평한 소득 분배, △사회보장 및 안전망 강화가 목표

-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GDP 기여도를 '21년 7.6%에서 '27년까지 1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경공업, 식품 제조, 건설 기자재 등 육성
- 제3차 중기계획에도 제조업 육성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3차 중기계획을 계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제조업의 GDP 기여도가 감소하여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관건
-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혜택 부여, 허슬러 펀드* 설립으로 저비용 중장기 금융에 대한 접근성 제공
 - * 허슬러 기금(Hustler Fund) : 중소기업 대출, 디지털 경제, 콘텐츠 산업, 보건의료 서비스, E-모빌리티,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등 여러 방면에 정부가 지원하는 기금

- 디지털 격차 해소, 혁신과 창의성 촉진을 위해 디지털·ICT 분야를 신설하는 것이 4차 중기계획의 핵심 과제
 - * (기존) 농업, 제조업, 주택, 의료 위주 → (개선)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주택, 의료, 디지털, ICT
 - ICT 인프라 확장 및 재건, 안정적인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강화,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 지원을 증점적으로 시행할 계획

〈4차 중기계획 거시경제 목표와 GDP 기여도〉

거시경제 목표			주요 분야별 GDP 기여도		
분야	(현재)2023	(목표)2027	분야	(현재)2023	(목표)2027
실질 GDP 성장률	7.0	9.2	제조업	7.9	15.0
GDP 대비 투자 비중	25.4	28.5	금융	7.1	8.2
GDP 대비 국내저축률	21.2	24.5	인프라	4.9	5.9
GDP 대비 수출규모	12.5	19.5	사회	5.9	7.0
GDP 대비 수입규모	21.9	25.0	환경 및 천연자원	7.9	8.9
GDP 대비 공공부채율	70.2	65.0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	4.8	5.8

자료: The Fourth Medium Term Plan 2023~2027

▣ 중기계획 시행을 위한 다양한 자원 조달 방안 마련

- 과세제도 현대화를 통한 세수 확보로 재정정책 기반 마련, GDP 대비 순 부채 감축을 도모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및 4차 중기계획 추진력 확보

Finance Bill 2023

- * (정의) Finance Bill 2023은 케냐 정부의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증세 법안으로 가계뿐 아니라 기업, 산업, 징수 체계 등 조세 정책 개편을 광범위하게 다룬 법안
- * (목표) GDP 대비 세금 징수율을 높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달성*, 조세제도 효율화, 신산업 육성, 신규 세금 항목 도입 등
 - GDP 대비 세금 징수율 : (케냐) 15.3%, (아프리카 31개국) 16%, (아시아 28개국) 19%, (아프리카 중진국) 20% (자료: OECD)

- 케냐 정부는 신규 국가 세금 정책(Finance Bill 2023)을 도입하고 '23/'24~'26/'27 회계연도의 중기재정계획(MTRS)을 확정할 계획
 - * '23년 1차(7월) 및 2차(9월) 재정법 시행, '24년 3차(1월) 재정법 시행 예정
- 현재 케냐의 GDP 대비 세금 비율은 15.3%에 불과하지만, 이를 '27/'28 회계연도까지 GDP의 18.3%까지 점진적으로 늘려 과세 기반 확대할 예정
- 또한 케냐 국세청(KRA)은 전자세금시스템(eTIMS)을 도입하고 모든 상업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세 회피 또는 탈세를 통한 세입 유출 차단
- 케냐의 공공부채 규모가 GDP의 약 67%를 차지하는 가운데, 유로본드 채권 만기 도래 등 재정 유동성 문제로 국가 위기 발생 가능
-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IMF 차관 도입하여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IMF의 전제조건 달성을 위해 재정법안 도입
 - * 피치(Fitch)는 '23.7월 예산안 발표 기간에 재정 유동성 위험을 사유로 케냐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치함
- 국제 금융기관과의 협력 확대, 민간 자금 조달 확대, 외부 재정 도입 확대로 정부 정책 추진 자금을 마련
 - 케냐 정부는 IMF로부터 확장자금시설(EFF) 및 확장신용시설(ECF) 프로그램을 승인받아 약 8억 9,478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확보
 - * EFF/ECF 프로그램 : 케냐 경제성장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지출을 통제하면서 정부 수입을 늘리는 등 재정 건전화를 통해 부채 취약성을 줄이는 프로그램
 - 세계은행(WB) 이사회는 개발정책운영(DPO) 프레임워크를 통해 케냐에 10억 달러 상당의 신규 대출 승인 예정
 - 한국 정부는 콘자 스마트시티 사업, 케냐 경제 활성화를 위해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26년까지 기존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증액함
 - 인프라 개발 사업에 있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통해 민간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재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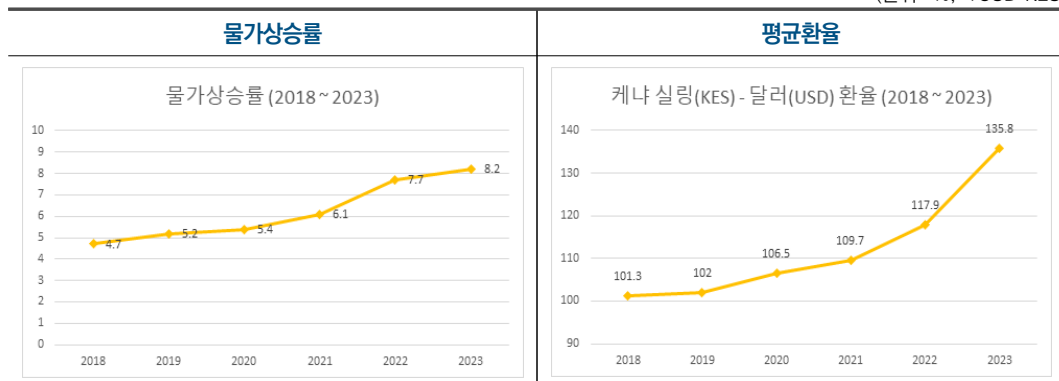
나. 무역 활성화 추진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 및 수출 산업 육성

▣ 케냐 수출입 구조 개선을 통한 외환 수지 개선 도모

- 보호무역, 수출 장려 정책 시행으로 수입대체산업 육성 및 외환 확보
 - 케냐는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 대외적인 영향에 민감, 달러화의 강세는 곧 물가 상승에 영향
 - 최근 케냐 실링화 폭락에 따른 외환보유고 부족, 부채 상환 부담 가중, 물가 상승 등의 문제를 가격경쟁력 확보에 따른 수출 활성화 기회로 보고 수출 장려 정책을 추진
 - 식품 가공, 의복 제조, 건축 기자재 등 제조업 기반이 있는 산업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세를 높이는 등 수입 규제정책 실시
 - 케냐 재무부는 수출 촉진으로 환율 약세를 극복하고 외환보유고 확보 계획
- 수출 촉진 및 투자 추가 부과금 도입, 투자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재정법 개정을 통한 무역 투자 활성화
 - '23.9월 2차 재정법 개정을 통해 '16년에 제정된 「기타 수수료 및 부과금 법」에 수출 촉진 및 투자 추가 부과금 제도를 신설하고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마련
 - 케냐에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이나 경제특구(SEZ)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부여
 - 케냐에 지점 및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여 외국 기업의 케냐 진출 장려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물가와 환율〉

(단위: %, 1USD:KES)



자료: 케냐 통계청, 케냐 중앙은행

▣ 양자 및 다자 외교 확대를 통한 국제적 영향력 확대 및 무역협정 확대

- 무역협정 신규 체결 확대를 수출 장려를 위한 기반 마련
 -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존에 답보 상태였던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국 제품 경쟁력 향상, 불법 무역 억제, 수출시장 접근 확대에 중점
 - * 주요 추진 무역협정 : 케냐-미국(STIP), 케냐-EU(EPA), 케냐-이란(MoU)
 -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협정(AfCFTA) 활성화를 위한 범아프리카 결제 시스템(PAPSS) 도입 논의, 총 47개 회원국 간 무비자·무관세 혜택 확대
 - 동아프리카공동체(EAC) 회원국 간 비관세 장벽(NTB)과 보호무역주의 철폐를 위해 노력 중이며, 공동체 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과 자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EAC 통합 e-Passport 발급, 통화 동맹 의정서 채택 및 동아프리카 통화협회 설립 등 협력 추진
 - * 동아프리카공동체(EAC) 회원국 :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7개국
- 재외공관 설립 확대, 동포국 신설로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및 자국민 해외 진출 지원, 외환 통제 강화
 - 전 세계적으로 공관을 신설 및 정비하여 국제 협력 강화, 동아프리카의 지역 강국 및 교두보로서의 지위 확대
 - * 공관 신설(6개소) : 쿠바(아바나), 지부티(지부티), 스위스(베른), 세네갈(다카르), 가나(아크라), 탄자니아(아루샤) / 공관 정비(3개소) : 남아공(프레토리아),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탄자니아(다레살람) / 설립 예정(2개소) : 스위스(제네바), 미국(뉴욕)
 - 동포국을 신설하여 해외 거주 자국민 보호, 해당국 진출 지원, 불법 송금 모니터링 등 외교부 내에 해외 거주 자국민 관리 기능을 신설

다. 대내외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 안정적 국정 운영 위한 노력

▣ 집권 1년 차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 평화협정 추진

- 대외 거시경제 악화 및 물가 상승, 세금 인상으로 따른 국민 생활고 가중
 - 높은 국가 부채와 낮은 세수로 재정 경색을 겪고 있는 정부 재정의 균형을 잡고,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화폐정책이 불가능함에 따라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인상을 단행

- 지속적인 환율 약세와 물가 상승으로 케냐 국민의 생활비 상승이 체감되는 가운데, 세금 인상까지 겹치며 생활비 부담이 가중됨
- 전국적인 시위 확산, 유혈 사태 발생, 사회적 혼란 야기
 - 케냐 국민과 여러 종교 및 시민단체들은 급진적인 세금 제도 개정과 생활비 부담 증가에 대한 항의로 국지적인 시위 진행
 - 제1야당 대표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는 생활 물가 안정과 재정 법안 개정을 요구하며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3.20일부터 주 2회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하고 이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
 - 루토 대통령은 세금 제도 도입을 강행, 예정된 시위를 경제적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강경하게 대응, 유혈 사태 발생 등으로 경제 활동 일부 마비
 - 케냐 인권 단체인 독립의료법률단체(Independent Medical-Legal Unit)에 따르면 시위에 참여한 케냐 국민 37명이 사망했으며 200명 이상이 체포,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1명 사망을 포함 300명 이상이 부상
- 국가 안정과 상생을 위한 평화협정 추진 및 정치 안정 도모
 - 대규모 시위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자 UN,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와 케냐 내부 종교 및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
 - 루토 대통령과 라일라 야당 대표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결과로 일부 항목 개정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등 약속하여 유혈 사태 및 정국 혼란이 일단락
 - 추가적인 경제 위기 발생을 제외하고 '24년은 큰 정치적 이슈가 없어 '23년보다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주변국 정치 불안 지속, 케냐 정부 치안 강화

- 케냐 주변국 내전 및 쿠데타로 인해 무정부 상태 확산 추세
 - 최근 잇따른 군부 세력의 쿠데타로 인해 아프리카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이른바 '쿠데타 벨트'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로 빠르게 확산 중
 - '22년 한 차례 내전을 겪은 에티오피아에서도 쿠데타 위기가 고조, 주변 국가의 혼란 지속
- * 아프리카 지역 쿠데타 발생 현황 : 말리('20년), 차드·수단·기니('21년), 부르키나파소('22년), 니제르·가봉('23년)

- 소말리아 혼란 지속과 알샤바브 무장 활동 증가로 국경지대 유혈 사태 발생 등 3~4년 주기로 발생하는 대형 테러 위험도 증가
- 혼란 속 안정적 국가 운영을 위한 케냐 정부의 치안 지출 증가
 - 정국 혼란을 평화적으로 해결,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며 내부 쿠데타에 대한 위험을 낮춤
 - 주변국 정국 불안에 따른 대규모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꾸준히 치안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 * 경찰 배치 증가(UN 권장 경찰 대 인구 비율보다 많은 1:470), 국경 통제 시스템 도입, 해양 경비대(KCGS) 설립, 불법 총기 및 탄약 회수
 - 루토 정부는 4차 중기계획(MTP IV)을 통해 치안 예산을 증액하고 국경 감시 강화, 경찰 서비스 현대화 및 개혁을 통해 치안 강화 선언
 - * 케냐 국가 안보 예산 : ('22) 1,178억 KES → ('23) 1,892억 KES로 약 61% 증액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정국 불안 요인 일부 해소, '24년 안정적 국정 운영 전망
- ※ 환율·물가 위기로 경제가 다소 둔화,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 안정 도모
- ※ 농업·제조업·ICT 산업 등 정책 수혜산업과 전통산업인 관광업·금융업 주목
- ※ 미국·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

가. 정치 환경

▣ 집권 1년 차를 맞이한 루토 정부 현황과 주요 공약 이행 현황

- 루토 대통령은 주로 대외 협력을 통한 현안 해결, 국제관계 구축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국내 경제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
 - 아프리카 기후정상회담(ACS 2023) 나이로비 주최, 기후 자금 조달, 국제 기후 협상을 위한 공통 대륙 프레임워크 구축
 - EAC 및 AfCFTA를 통해 아프리카 내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통 통화 거래*를 추진
 - * 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환 부족 사태 및 부채 상환 압박 완화 조치
 -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자간 대출 기관의 대출 이자율 인하 및 추가 자금 확보로 재정 경색 돌파구 마련
 - 윌리엄 루토 대통령에 대한 케냐 국민의 여론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부정적
 - * 나이로비 소재 여론 조사 회사 티파 리서치(Tifa Research)가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케냐 국민의 52%는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
- 민생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책과 소득 증대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으나 대외 경기 불안정으로 정책 실효성 약화

〈루토 정부 주요 공약과 이행 여부〉

공약	세부 내용	이행 여부
청년 실업 극복	청년기금 1,000억 실링 투자	△
중소기업 지원	허슬러 기금(Hustler Fund) 500억 실링 투입	○
생활 물가 안정	100일 이내 생활비 절감	△
공공부채 탕감	이전 정부의 막대한 부채 문제 해결	○

- 자국 산업 육성정책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코로나19 이후 극심했던 청년실업이 일부 해소되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며, 기금 마련 등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미시행
* 케냐 청년실업률 : ('18) 10.7% → ('20) 13.8% → ('22) 13.3%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제4차 중기계획에 포함시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보였으며, 현재 2,100만 명 이상 기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
-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높으며, '재정법안 2023 (Finance Bill 2023)' 도입으로 조세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케냐의 경제성장, 환율, 물가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
- 케냐항공(KQ)과 같은 부실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탕감 노력을 확대하고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 건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나. 경제 환경

■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 대외 경기 악화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대외 충격에 취약한 아프리카 국가 중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경기 안정 단계에 진입할 전망
 - '22년 경제성장률은 5.5%로 코로나19 이후 기저효과를 보였던 '21년과 비교하여 약 3%가량 하락, '23년은 전망치인 5.6%를 하회할 전망
 - '23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8.2%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경기 둔화 가능성
 -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연료 보조금 재도입, 주택 부담금 완화,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소비 및 투자 둔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시행 중

- 물가 안정, 외화 유출 방지를 위해 '23. 6월 금리를 1% 인상, 10.5%를 유지 중이며, 미국발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고 물가 안정화할 전망이어서 '24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제한적일 전망
- '23.8월 기준 물가는 6.7%로 환율 상승폭 둔화와 경제 회복이 기대되며, 향후 경제성장률은 '24년 6.0%, 이후 지속 5~6% 성장이 예상됨

〈주요 기관별 케냐 경제성장률 전망치〉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계은행	1.5	7.5	5.5	5.0	5.2
EIU	-0.3	7.5	4.5	4.5	5.2
AfDB	1.4	6.7	5.9	5.6	6.0
IMF	1.0	7.5	5.7	5.3	5.4

자료: 각 기관별 보고서 종합

- 무역정책, 주요 산업 육성정책으로 환율 리스크 완화와 거시경제 안정 확보 노력
 - 케냐 실링-달러 환율 하락, 대규모 시위로 인한 정세 불안 등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주식시장 가치가 절반으로 하락하면서 기관투자자의 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
 - 정국 불안정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발도상국 및 신흥 시장 투자보다 미국·영국·EU 등 선진국 안전자산에 투자,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어 외환 시장에 악영향
 -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케냐의 전통적 수입원인 관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와 국제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인프라 건설 활성화, 제조업 보호정책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 중
 - IMF·유로본드·WB 등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자금 흐름 개선을 통해 거시경제가 안정화할 전망

다. 산업 환경

▣ 케냐 주요 산업 동향

- '22년 전체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은 농업·수산업 등 1차산업이 약 21.2%, 제조업·광업 등 2차산업이 17.7%를 차지했으며, 관광업·금융업 등 서비스 3차산업이 61.1%를 차지

- 대부분 산업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22년 산업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함
 - 전통적인 수입원인 관광 및 금융산업의 성장이 경기 회복에 기여
 - 농림수산 분야(1.6%), 제조업(2.7%) 등 케냐의 기존 주요 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성장률이 저조
 - 금융 서비스 분야(12.8%), 정보통신 분야(9.9%),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 분야(26.2%) 등 3차산업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케냐 산업 전반의 발전을 견인
- 농림수산 분야는 '22년 기록적인 가뭄의 영향을 회복하지 못하여 주요 농작물(옥수수, 감자 등)의 생산량이 감소, 농·수산업 현대화 정책 추진이 더뎠지면서 정책 수혜 대상 산업임에도 성장 탄력을 받지 못함
 - 농림수산업의 GDP 기여율은 ('20)23.0%→('21)22.4%→('22)21.2%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개수로 건설, 농기계 도입, 비료 보조금 지급 등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가 '23년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
 - 케냐의 주력 수출품인 환금성 농산물(커피, 과일, 차 등)과 원예 수출은 가격경쟁력을 되찾으며 농산물 수출 프로젝트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전망, '23년, '24년 농림수산 분야 성장을 견인할 전망
- 제조업 부문은 '22년에도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비식품 제조업 대비 식품 제조업에서 부진을 겪으면서 '21년의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였으나, 4차 중기계획의 수혜로 지속 성장할 전망
 - 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 가공, 농업 기반 제조업에 대한 보호무역이 명시되어 자국 수요부터 동아프리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식품 제조 환경 구축
 - 가죽·봉제산업 클러스터(나이바샤 섬유단지, 키나니 가죽단지, 아티강 섬유 허브 등) 조성, 뭄바사 자유구역 및 동고군구 SEZ와 연계한 세제 혜택 및 수출 장려를 위한 주요 정책 추진 예정
- 건설 분야에서는 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와 같은 토목공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성장세 유지, 케냐 정부가 범국민 주택 보급 정책을 본격화함에 따라 향후 성장이 기대
 - 루토 정부는 건축자재 생산, 건축·건설 전문 인력 양성으로 1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 신설한 주택부담금 기금으로 공공주택 25만 채 건설하고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2%에서 50%로 확대

- 정보통신 분야는 모바일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정부가 ICT 인프라 공급을 확대하고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IT 생태계가 구축되는 한편, 고속 인터넷과 휴대폰이 보급되면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코로나 이후 해외 방문객 수가 회복되면서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 분야가 눈에 띄게 성장, 금융 서비스 분야는 동아프리카 금융 거점의 지위로 자리매김하며 현금 유동성이 좋아지고 신용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케냐 경제를 견인
 - * 해외 방문객 수는 '21년 87만 명에서 '22년 148.3만 명으로 70.5% 증가, '23년엔 코로나 이전 수준인 160만 명으로 회복할 전망

〈Finance Bill 2023의 수혜 산업〉

산업구분	주요 내용
제조업	• 정부 4대 핵심 중기 목표의 하나로 '제조업 성장'을 선정, 제조업의 GDP 기여도를 15% 수준까지 확대 목표 • '23/'24년 제조업 예산 배정액 9.7% 증액(약 1억 8,000만 달러) • 산업단지 조성(47개 카운티), 세제 혜택, 비관세장벽(수출분담금·소비세 등)으로 제조업 육성 탄력 전망 • 식품 가공, 건축 기자재, 제지, 섬유 등의 제조업 수혜 전망
건설업	• 주택부담금(소비세 성격)을 도입하여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2%→50%), 국민주택기금 운영으로 공공주택제 지속 • 인프라 사업(담·수로 개발, 도로 확충 등)에 2,449억 케냐 실링(약 16.8억 달러) 배정, 10만 개 단기 일자리 창출 • 건축외장재 시장(시멘트, 철강 등) 육성을 비관세장벽으로 뒷받침, 동아프리카(EAC) 내 무역으로 지역 내 시장 선점
ICT	• 디지털 자산에 조세 정책을 적용하여 디지털 콘텐츠, 블록체인 등을 제도화할 전망 • e-거버넌스 프로젝트 추진하여 정부 서비스의 80%를 온라인으로 제공(eTIMS, eHealth, eOffice 등)하는 시스템 구축 예정

라. 정책·규제 환경

▣ 케냐-미국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STIP) 추진

- 아프리카 생산품에 면세 혜택을 주는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 Growth Opportunity Act, AGOA) 제도가 '25년 9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케냐-미국 간 새로운 경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 개시

- '23.2월 양국은 사전 협상을 통해 논의 시작, 4월에 추가 협상을 진행하여 디지털 무역, 서비스 국내 규정, 표준 협력, 영세 중소기업, 노동, 농업, 여성·청소년, 부패 방지 조치 등 여러 주요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냄
- 양국은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맥 휘트먼 주케냐 미국 대사는 케냐-미국 간 무역협정이 연말까지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봄
- STIP 체결 시 미국의 전통적인 무역 협상과는 달리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농업, 디지털 서비스 등 케냐 경제 부문의 노동 및 생산 표준을 높일 수 있는 전방위적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될 것으로 기대

▣ 케냐-EU 경제 파트너십 협정(EPA) 체결 추진

- '23.6월 케냐와 EU는 EPA 체결을 위한 협정 발표, 케냐가 EAC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무역 거래를 하는 EU와 자유무역협정 추진 발표
 - EU는 케냐 경제의 핵심 산업인 농업을 보호하며 동시에 개발 협력, 금융 지원 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발표, 주력 품목인 농산물 및 제조업에 대한 수출 판로 개척 전망
 - 또한 EU-케냐 간의 경제 파트너십 협정은 EU-EAC EPA 조항 이행을 목표로 하며, 향후 다른 EAC 국가의 가입을 허용할 예정
 - 법령 해석 및 주요 안건을 교환하고, EU 위원회가 채택 및 협정 서명한 후, 유럽 의회가 비준 시 정식 발효 예정
-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국가들의 반발로 발효까지 추가적인 논의 필요
 - EAC 국가들은 케냐가 EU와의 EPA 협정에 따라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EAC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던 공동 관세 제도(CET)가 왜곡되어 자국 산업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
 - 또한 케냐가 신흥 국가 범주(1인당 GDP 2,000달러 이상)에 속하는 유일한 EAC 회원국이고 나머지 국가는 최저 개발 국가로 분류되어 수출 시 우대 관세 혜택을 받아 EU 시장에 계속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 동아프리카비즈니스협의회(EABC) 등 경제 단체들은 케냐 정부에 EU와 최근 체결한 협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

케냐-EU EPA 체결 관련, EAC 주요국의 논평

- * (탄자니아) 현지 생산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된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EAC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 유럽 제품에 대한 수입세가 철폐되면서 수입 손실이 우려됨
- * (우간다) EAC 공동체 붕괴 염려, 모든 EAC 파트너 국가들이 공통 입장에 도달할 때까지 답변 유보
- * (부룬디) 비인류적 국가 운영에 따른 EU 제재를 받고 있어서 협상 거부

▣ 기후변화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케냐 경제는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공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기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혁 및 역량 강화가 중요
 - 기후변화 정책을 시행하고 대응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케냐 정부는 IMF로부터 회복지속가능성제도(RSF)* 지정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케냐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위해 20개월 약정의 5억 5,140만 달러 대출을 승인
 - * 회복지속가능성제도(The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Facility, RSF) : 저소득 및 취약한 중간 소득 국가가 기후변화 및 전염병 대비와 관련된 문제 등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기존 IMF 대출이 다루지 못한 기후변화와 IMF 자금의 장기·구조적 문제를 보완한 프로그램
 - RSF 프로그램은 케냐의 기존 ‘기후변화 프레임워크’를 강화하여 녹색 공공 재정 관리, 기후에 민감한 공공 투자의 관리 및 개혁을 촉진할 전망
 - 특히, 탄소 가격 책정 및 거래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후 관련 문제를 정책과 프레임워크에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른 민간의 기후변화 산업 진출, 관련 금융상품도 확대될 전망

▣ 공공기관 거버넌스 혁신 및 부패 척결을 위한 기반 마련

- 루토 정부는 부임 이후 공기업 개혁을 통한 거버넌스 혁신 공약
 - 케냐항공(KQ) 및 케냐 전력조명회사(KPLC)는 연간 부채 비율이 계속하여 상승, 정부 예산 지원에 의존적이어서 지속적인 적자와 운영 비효율 초래

- IMF 권고에 따라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23.5월 케냐 내각은 KQ 및 KPLC의 중기 수익성을 회복하고 유동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 법안 승인
- 의약품조달청(KEMSA), 표준청(KEBS) 등 부정부패 신고 채널 신설 및 신상필벌로 인가 획득을 위해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관행 개선을 위한 TF 구성 및 기관장 해임
- 사법기관 접근성 확대 및 디지털 전환으로 사법 처리 투명성 제고
 - 판사 대 인구 비율은 '18년 1:315,231에서 '21년 1:276,537로 증가하는 등 사법 제도 현대화와 법원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22개의 치안법원, 8개의 이동식 치안법원, 2개의 고등법원이 설립
 - 전국의 모든 법원에 전자 사건 관리 시스템 및 사건 추적 모듈 배포, 전자 사건 제출 모듈은 나이로비의 모든 법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 전망,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제고

- ※ 모바일 환경 구축에 따른 온라인 시장 확대로 디지털 혁신 활발
- ※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 동아프리카 역내 수출입 활발
- ※ 한·케냐 수교 60주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활용해 한국형 프로젝트 진출 확대

가. 시장 특성

▣ 디지털 혁신과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장

- 케냐는 동아프리카에서 인터넷 보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로, '23년 초 기준 케냐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1,786만 명(총인구의 32.7%*)
 - * 동아프리카 국가의 평균 인터넷 보급률 : 23.1%
 - 인터넷 사용자는 작년 초보다 8%(약 130만 명) 증가, '13년부터 10년간 평균 12.4%씩 증가, 인터넷 사용자 중 96.8%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인터넷 접속한 것으로 집계되어 모바일 생태계 구축이 인터넷 사용 증가율을 견인
 - 윌리엄 루토 정부 집권 이후 전자정부 시스템 공공서비스가 기존 300개에서 5,000개 이상으로 확대되며 정부 디지털화를 가속화
- 케냐 정부는 디지털 및 ICT 인프라 확대를 새로운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인프라 개발과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양성을 예고
 -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 광섬유 백본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케냐 전역에 인터넷 보급이 더욱 활발해질 예정
 - * 케냐 광섬유 백본 프로젝트 : 케냐의 주요 대도시를 연결하는 광섬유 설치 프로젝트로 ICT 인프라 확대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
 - 케냐 정부는 디지털 접근과 포용 촉진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저렴한 스마트폰 보급을 늘릴 계획*
 - * 케냐 최대 통신기업 사파리콤(Safaricom)과 협력하여 현지 스마트폰 조립공장을 설립하고 저렴한 가격의 스마트폰(약 40달러)을 출시할 예정

- 케냐는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56번째로 큰 시장으로 '23년까지 매출이 27억 8,890만 달러로 예상되며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됨
 - 글로벌 마트 체인 까르푸(Carrefour)는 자체 앱을 통해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이바스(Naivas), 퀵마트(Quickmart) 등 케냐 메이저 슈퍼마켓에서는 Glovo, Jumia 등 케냐인들에게 익숙한 앱을 통해 서비스를 도입
 -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이 늘어남에 따라 B2C를 넘어서 B2B, C2M 등으로 확산, 소비재 유통 시스템은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 중
 - * B2B 대표 스타트업 : Tushop, Kapu / C2M 대표 스타트업 : Copia
 - 케냐 전자상거래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Jumia에서는 일본과 중국 등 해외 배송 제품의 거래도 활발해 가격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시장 진출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
 - * Jumia는 '22년 기준 케냐에서만 940만 달러의 수익을 달성함

■ EAC 시장 활용과 자유무역협정(AfCFTA·영국·미국·EU)에 따른 기회

- 동아프리카 경제공동체(EAC)는 케냐를 비롯하여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7개국으로 구성
 - '22.7월 콩고민주공화국이 공식 가입함에 따라 EAC 규모는 더욱 확대,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약 3억 명('22년 기준)
 - 전체 GDP는 '22년 PPP 기준 9,200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34위의 경제 규모, 아프리카 내 타 경제공동체에 비해 가장 유기적으로 통합 추진 중
-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 중 27개국은 AfCFTA 서명과 동시에 국가연합을 위한 여권 통합(Free Movement of Persons and the African Passport) 프로토콜에 합의
 - 세계은행 보고서는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장 이익을 얻는 나라로 케냐를 3위에 랭크
 - AfCFTA는 지역 내 무역 활성화, 공급망 강화, 전문성 확산 등을 통해 아프리카가 오랜 경제적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할 전망
 - 케냐는 동아프리카 물류 허브 입지를 보유함에 따라 AfCFTA 추진의 직접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 케냐 정부 또한 AfCFTA 조기 추진을 위한 전략 구축
- 우리 기업이 케냐에 제조업 투자를 할 경우의 시장 확대 기회 다대
 - 약 3억 명 규모의 동아프리카 소비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 AfCFTA 발효 시 아프리카 40여 개국이 참여하는 총 13억 명 이상 소비자를 보유한 아프리카 소비시장에 무관세 진출 가능
- 케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 아프리카 제조업 선도국 추격 모델을 통한 제조업 육성, 금융·물류·ICT산업 발전 전략으로 진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

나. 교역

▣ 케냐의 수출입 동향

- 케냐의 '22년 총수출은 76억 달러로 '21년 73억 달러에 비해 5.19% 소폭 증가, 총수입액은 210억 달러로 '21년 194억 달러에 비해 8.30% 증가
 - '21년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 정책으로 건설업, 운수업, 제조업 등에 케냐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또한 증가
 - 수입은 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로 석유제품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60.36% 증가, 그 뒤를 기계부품, 철강, 곡물 순으로 차지
 - 총수출은 '21년 대비 5.19% 상승하였는데, 주요 수출품인 차와 커피, 원예제품의 선전 추세는 '22년에도 이어졌으며, 가뭄의 여파로 과일과 견과류 같은 농산품 수출은 감소했으나 선박 및 수상 구조물 수출의 대폭 증가로 수출 증가를 견인함

〈케냐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58	-3.8	60	3.45	73	21.49	76	5.19
수입	171	-1.40	153	-10.17	194	26.80	210	8.30
수지	-113	0.1	-93	-17.70	-121	30.12	-134	10.17

자료: Global Trade Atlas

■ 케냐의 국가별 수입 동향

〈경쟁국의 對케냐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20년	국가명	2021년	국가명	2022년
1	중국	3,434	중국	3,992	중국	3,817
2	인도	1,786	인도	2,089	UAE	3,418
3	UAE	866	UAE	1,614	인도	2,116
4	일본	846	사우디	1,035	사우디	1,034
5	사우디	648	일본	886	말레이시아	1,023
6	인도네시아	601	말레이시아	886	일본	824
7	미국	545	미국	761	미국	787
8	남아공	477	탄자니아	486	남아공	516
9	이집트	453	대한민국	483	탄자니아	449
10	말레이시아	435	이집트	442	대한민국	424

자료: Global Trade Atlas

- 케냐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UAE, 인도, 사우디, 말레이시아, 일본 등
 - 중국이 전체 수입의 18.2% 차지, '13년 이후 케냐의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
 - '22년 기준 케냐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38억 달러), UAE(34억 달러), 인도(21억 달러), 사우디(10억 달러), 말레이시아(10억 달러), 일본(8억 달러) 순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1년 대비 4.4% 소폭 하락하였으며, UAE로부터의 수입액은 '21년 대비 111% 급등하여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 인도로부터의 수입액은 '21년 대비 1.3% 소폭 상승
 - 대부분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작년과 비슷한 가운데, UAE의 석유 수입량 증가에 따른 수입액 대폭 상승, 남아공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은 2억 달러 증가하여 성장세가 두드러짐
- 한편,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탄자니아, 이집트로부터의 수입이 약 10% 감소하며 코로나19 이후 완전한 경기 회복을 이루지 못하여 수요가 감소한 케냐 시장의 상황을 방증함. 한국은 '21년에 비해 수입량이 12.1% 감소하며 10위 기록

▣ 케냐의 주요 수입 품목

- 케냐의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석유·정제유, 기계부품, 철강, 곡물, 동·식물성 기름, 전자기기제품, 차량, 플라스틱제품 등이 있음
 - UAE는 '21년에 비해 석유제품의 수출량이 111.72% 상승하여 전체 수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해 중국을 빠르게 추격
 - 중국, UAE, 인도, 사우디, 말레이시아 5대 수출국이 전체 수입량의 50%를 차지하는 구조
 - 그러나 '23년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케냐 내 유류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3년에는 수입국 다변화 추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높은 에너지, 완성품 의존도에 따라 석유제품, 기계, 철강 등의 수입이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곡물과 동·식물성 기름의 수요가 늘며 수입량이 증가
 - 한국은 주력 상품이었던 철강과 화학제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광물(2,939.80%) 및 플라스틱(56.24%) 제품 수출이 작년에 비해 크게 성장

〈케냐의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입				수출			
	품목명	수입액			품목명	수출액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1	석유제품	2,211	3,471	5,566	차, 커피	1,326	1,457	1,720
2	기계, 부품	1,419	1,588	1,413	원예	631	799	692
3	철강	920	1,275	1,232	석유제품	408	276	447
4	곡물	792	1,027	1,191	광물 부산물	205	256	334
5	동·식물성 기름	858	1,046	1,154	동·식물성 기름	187	215	312
6	전자기기	1,193	1,182	1,075	선박 및 수상 구조물	5	11	282
7	차량	1,111	1,366	1,049	과일류	214	281	278
8	플라스틱제품	719	974	967	식물류	196	229	228
9	의약품	685	770	757	채소류	292	299	214
10	종이류	320	412	486	철강	126	162	201

자료: Global Trade Atlas

■ 케냐 표준·인증정책

- 케냐 표준청, 수출을 위한 선적 전 검사에서 특정 품목에 한해 자체 테스트 리포트 제출 허용
 - '22.2월 표준청은 자체 테스트 리포트 제출을 전면 금지하고 인증 절차에서 비관세장벽을 높였으나 7월부터 자체 테스트 리포트를 재허용
 - 다만, 정부가 지정 또는 소유한 실험실, 케냐 표준청(KEBS)과 계약된 인증 대행사 (SGS) 소속 실험실, ISO/IEC 17025 인증 보유 실험실에서 발급된 테스트 리포트만 인정하여 여전히 까다로운 표준·인증정책을 유지
 - 품목별로 테스트 리포트 요건을 차별화, 특히 가공되지 않은 상품은 ISO 17025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결과만 취급하는 등 인증 절차가 복잡

■ 수출 현장 애로·기회 발굴 사례

- 까다로운 인증제도에 따른 비관세장벽 강화로 수출 중단 위기
 - 케냐 표준 및 물품 검사국(Kenya Bureau Of Standards, KEBS)*은 케냐 내에서 제조·판매되는 모든 소비재를 대상으로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 * 표준 제정 및 인증 관리, 검사 및 평가, 인증, 판매 가능 상품에 대한 마크(스티커) 부여 등 케냐에서 제조·수입되는 제품의 표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소비자 보호 명목하 과업 수행
 - 그러나 수시로 인증 기준을 바꾸거나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수출 전 선적서류 구비요건이 매우 까다로움
 - ❶ 케냐 정부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 ❷ KEBS와 독점적으로 계약된 물품 인증 대행사 소속 실험실, ❸ ISO/IEC 17025 인증 보유 실험실에서 발급된 테스트 리포트만 인정, ❹ KEBS 일부 담당자들과 연결된 브로커를 통해 진행 등 신규 테스트 리포트 발급 절차 및 비용이 과다하여 대부분의 우리 기업은 수출 중단을 검토

[사례] 스티커에 부여된 일련번호를 스캐닝하여 KEBS 허가를 받고 정식 통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으나, 스티커를 위·변조하여 유통망에 납품하는 사례 빈번.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지불하고 있긴 하나 모 국가 같은 경우 대사관에서 주도적으로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불하여 무마하는 경우 빈번(서류상 기록이 남지 않음)



- 나이로비 무역관 특화 사업인 광역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 스마트시티 산업 분야 성약 지원
 - 실 수입자 매칭 데이터를 활용하여 KEBS의 선적 전 검사 대비가 용이한 품목이거나, 중간재(원료) 중심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 중심으로 케냐 중심 아프리카 광역 디지털 마케팅 시행
 - 또한 BIG 5 건축기자재 한국관 구성과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포럼 개최’→한국산 제품의 품질·기술력에 대하여 알리고 현지 진출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시행, 케냐 정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KEBS의 비관세장벽 대응
 - 비관세장벽 강화로 케냐 수출을 포기하려던 국내기업은 첫 수출에 성공(’22년 하반기)했고 ’23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1,095,284 증가

다. 투자

▣ 최근 투자 진출 동향

- ’23년 현재 공개된 UNCTAD 통계 기준, ’22년도 우리나라의 對케냐 직접투자는 7억 6,000만 달러로 ’21년의 4억 6,000만 달러 규모에서 63.91% 증가
 - 코로나19 이후 기저효과로 총 87억 달러의 직접투자를 실행, 동아프리카 지역이 ’21년 대비 3.47% 증가한 것과 다르게 큰 폭으로 상승
- ’22년 대선은 케냐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선거였으며 정국 불안요소를 없애고 ’23년에 ‘제4차 중기 계획’을 시행해 경제가 회복되고 산업이 발전할 전망
 -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져 ’17년부터 지속 하락하던 투자금은 ’22년을 기점으로 반등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
- 한편, M&A는 ’21년 3억 9,000만 달러 수준에서 ’22년 3,300만 달러 수준으로 91.4% 하락
 - 그린필드 투자*는 ’21년 21억 달러에서 ’22년 20억 수준으로 7.3% 하락
 - * 그린필드(Green Field) 투자 : 모기업이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처음부터 구축하여 외국에서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한 형태
 - UNCTAD 통계 기준 직접투자는 증가하여 기존의 M&A와 그린필드 투자가 직접 투자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케냐가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방증

- 케냐 주식시장은 외국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주식투자에서는 '22년까지 유지되던 유입세에 비해 최근에는 외국인 자본 유출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불안정한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달러 대비 케냐 실링화 약화, 대규모 시위 등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23.8월 케냐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로 자본이 대거 유출, 주식시장 가치는 절반 이하로 하락
 - 이에 연기금 운용사, 보험사 등 주식 의존도가 높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타격
 - * 케냐 주식시장 최대 상장기업인 사파리콤(Safaricom)은 시가총액이 1조 1,700억 KES에서 6,310 KES(약 65%)로 하락(5,390억 KES 손실)하였으며 이 밖에도 KCB(739억 KES 손실), Equity Group(511억 KES 손실), EABL(344억 KES 손실), KenGen(160억 KES 손실), Jubilee Holdings(137억 KES 손실) 등 기업이 큰 손실을 입음
 - '24년 이후에는 선진국 시장의 수익성 악화와 금리 인상 기조의 한계로 케냐의 외화 유출세는 조금씩 회복될 전망
 - 케냐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보안을 강화하여 외국인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계획

■ 케냐 투자 진출 유망 분야

- 케냐는 전력의 80% 이상을 친환경 에너지로부터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선도국으로서 최근 몇 년간 에너지 분야에서 최고의 투자처로 손꼽힘(UNCTAD)
 - 현재 케냐에는 30여 개의 민간기업만이 독자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도록 규제
 - 그러나 케냐 내각은 새로운 전력 구매 계약(PPA)에 대한 유예를 해제('23.2월 말)하여 외국인도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를 촉진함
-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분야는 케냐 진출 유망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케냐 정부는 콘자 테크노폴리스(Konza Technopolis)를 필두로 아프리카 디지털 기술의 전초기지인 '실리콘 사바나'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음
 - * 콘자 테크노폴리스 : 케냐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로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도입하여 IT 친화적인 기술 집약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 물류 분야에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물류센터 설립 등 프로젝트 진행 예정
 - 아마존, 페덱스 등 글로벌 물류 업체도 케냐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

▣ 주요 경쟁국 투자 진출 동향

- 세계경제포럼(WEF)은 '20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서 케냐를 인적 자원이 우수하고 연구·혁신 가용성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로 선정
- 케냐의 외국인 투자 총규모는 104억 달러('15~'21년)에 달하며 주요 투자국은 영국(13.5%), 모리셔스(11%), 미국(10.3%), 남아공(9.8%), 프랑스(5.2%)
 -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FDI 수혜국 중 하나로, 주식에서는 주로 금융 및 보험(약 33%), 정보통신(16.1%), 도소매(15.4%), 제조업(14.8%)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영국은 케냐에 1억 2,300만 파운드(212억 2,000만 케냐 실링)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21.7월)하고 양국 관계 강화 및 신규 일자리 및 기회 창출 목표
 - 또한, 영국은 케냐와 경제 파트너십 협정(EPA)의 일환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23.3월)하여 對케냐 투자를 확대함
- 전통적으로 활발한 경제 교류를 하고 있는 EU 국가 및 인도는 주로 제조업과 농업에 진출하고 있음
 - 인도는 차 생산 및 가공, 네덜란드는 원예 등 주력 산업군에 맞춤형 투자 진출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EU-케냐 간 경제 파트너십 협정(EPA) 체결로 EU 국가들의 케냐 투자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중국도 케냐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데 특히 인프라 건설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 나이로비에서 열린 케냐-중국 간 고위급 회담('23.7월)을 계기로 양국은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 프레임워크를 통해 도로 개발,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JKIA), 몸바사 및 라무항 개선에 협력하기로 결정
 - 제6회 케냐 국제 산업 엑스포('23.9.11일)에서는 중국이 케냐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것으로 밝혀 케냐와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
- 일본은 아프리카 국가 중 케냐에 가장 많은 원조를 하고 있고 '20년 기준 총 1억 3,911만 달러를 지원, 이에 따라 건설업, 제조업 등이 진출
 - '22년 8월에 개최된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evelopment of Africa)에서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지열 발전 분야에서 양국 기업과 정부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

- 특히, 지역 간 연결성 향상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몸바사 섬과 케냐 남부 해안을 연결하는 몸바사 게이트 브리지(Mombasa Gate Bridge) 프로젝트 수행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에서 대부분 건설 자금을 지원받기로 합의함

■ 對케냐 투자 진출장벽

- 근로자 리스크 존재, 부족 간 분열 관련 불안정성, 비효율적인 법치·부패 등 투자에 수많은 장애물 존재
 - 그 중에서도 노동생산성 관련 문제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케냐 정부의 선결과제로 지적됨
 - 고학력 노동자의 임금은 500~600달러로 시작해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남아와 비교해도 저렴하지 않고, 주택수당 등 고용주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많아 투입비용 대비 노동 생산성이 낮음
 - 고용법이 복잡하여 현지인 고용·해고 절차가 복잡,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근태 등 근무 태만 상황이 일어나도 노동자의 입장이 유리
 - 근로자의 업무태도 불량과 도덕성 결여, 도난·폭력 사고, 치안 등도 애로사항
 -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 관행으로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시 평균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장 6개월까지만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어 취업비자 발급 지연 시 EAC 이외 국가를 방문하여 출입국 기록을 갱신,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불안정한 전력 공급, 인프라 노후화, 정국 불안 등으로 생산단가가 상승하는 것이 최근 對케냐 투자 감소의 직접적 원인
 - 올해부터 물가 상승이 이어져 정치·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수많은 기업이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
 - 또한,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이 리터당 200 케냐 실링을 돌파해 물류비, 생산비 등 전반적인 운영비용 증가
 - 지난 7월 시행된 재정법안에 따라 자본 송환 세금 신설로 케냐에서 타국으로 자본을 반출할 경우, 15%의 송환 수익 환수세가 징수됨
 - 케냐 현지에 비거주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체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인은 케냐 토지를 소유할 수 없어 초기 투자 시 위험 요소로 작용
 - 정부 거버넌스 능력 부족으로 케냐는 IMF, WB 등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계속하여 재정 건전화 권고를 받고 있음

라. 프로젝트

▣ 콘자 테크노폴리스(Konza Technopolis) 개발 지원

- 우리 정부는 KSP*, EIPP** 사업을 통해 콘자 테크노폴리스의 개발전략 수립 및 사업 실증화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케냐 진출을 촉진함

* 경제 발전 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 케냐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EIPP)

- EIPP 사업은 1차 연도 마스터플랜과 교통 인프라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2차 연도에는 도시 기능 개발을 위한 교통 및 산업 분야 개발 자문을 제공
 - '23/'24년 3차 연도 사업을 통해서는 재생에너지, 스마트농업,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센터 구축 등 산업 인프라 구축 관련 세부 추진계획 수립 예정
 - 3차 연도 추진 프로젝트는 케냐 정부의 주요 육성 산업 중 제조업, 농업, 에너지와 연관된 과제를 선정, 개발 협력을 활용해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현지 진출 기회 확대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 관련 KSP, EIPP 추진 현황〉

구분	총괄기관	사업명
KSP	수출입은행	('17/'18) 케냐 지능형 교통체계 및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지원
	KOTRA	('18/'19) 케냐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KOTRA	('20/'21) 케냐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관리방안
	수출입은행	('20/'21) 케냐 나이로비 대도시권 교통관리센터의 통합 운영 방안
EIPP	KOTRA	('21/'22) 케냐 콘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21/'22) 케냐 콘자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 세부 추진계획 수립
		('21/'22) 케냐 콘자 스마트시티 교통망 구축 및 스마트 모빌리티 기본계획
		('22/'23) 케냐 콘자 지능형 교통체계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22/'23) 케냐 콘자-나이로비 광역교통망 구축 기본계획
		('22/'23) 케냐 콘자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기본계획
		('22/'23) 케냐 콘자 스마트물류 조성 및 육성 기본계획
		('23/'24) 케냐 콘자 스마트 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 기본계획(잠정)
		('23/'24) 케냐 콘자 스마트농업 시스템 구축 계획(잠정)
		('23/'24) 케냐 콘자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혁신센터 구축 계획(잠정)

- KSP 및 EIPP 연계 EDCF 사업을 통해 구축된 콘자 과학기술원(KAIST)은 '24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그 외 EDCF 사업으로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나이로비-콘자 연결도로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 등 추진 중
- KSP, EIPP를 통한 콘자 테크노폴리스 구축 사례를 스마트시티 개발 모델에 반영하고, 케냐 전역과 주변국으로 확산해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모색 필요

- ※ EU,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선진 시장
- ※ 가치 지향의 소비자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시장
- ※ 에너지 가격 안정세로 '23년 EU 대외 무역 적자폭 완화세이나 EU FDI 투자액은 '19년 이후 저조한 흐름 지속 중
- ※ '23.8월 누계 기준 對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4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내 경기 둔화에도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선전

가. 교역

▣ 우리나라의 對케냐 수출

- 케냐 시장은 한국 제품과 신흥국 제품의 기술력 차이를 인지하기 시작,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디지털 마케팅을 통하는 직접 거래 선호
 - 화학, 철강 중심으로 우리 대기업 제품이 현지 바이어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품질 니즈가 명확한 제조업 중간재에 대한 관심 증가
 - 한국은 '22년 기준 4억 5,700만 달러를 수출하여 '21년의 2억 5,800만 달러 대비 76.69% 증가율을 보임
 - 전통적인 수출 상품인 철강·화학제품의 수출량 증가, 석유제품 비중의 확대로 한국은 對케냐 수입국 중 10위를 기록
- 한국은 전통적으로 완제품을 수출하지만, 최근 보호무역 및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중간재인 석유화학제품 및 합성수지제품을 주력으로 수출
 - 이 밖에도 비철, 제지 등 주로 2차 가공물 위주로 수출

〈2022년 한-케냐 주요 교역 품목 (MTI 3단위 기준)〉

수출 품목	금액(천 달러)	증감률	수입 품목	금액(천 달러)	증감률
석유제품	191,171	6,329.2	기호식품	37,963	69.9
합성수지	62,309	53.9	동제품	15,773	50.2
철강판	40,892	-41.4	기타금속광물	10,876	106.8
기타석유화학제품	30,485	-23.0	의류	4,315	34.5
알루미늄	15,140	189.1	알루미늄	2,368	11.5
종이제품	12,100	237.2	산식물	749	-22.1
아연제품	10,875	166.8	무선통신기기	351	-22.2
인조섬유	9,960	11.0	수목종자류	339	-9.4
정밀화학원료	9,420	21.3	신변잡화	172	128.1
농약및의약품	8,413	-24.5	농약및의약품	110	29,353.5
소 계	390,765	-	소 계	73,016	-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출 성공 사례

한국 기업 수출 성공 사례

□ 품목 : TDI(톨루엔다이소시아네이트)

- 동남아프리카 시장에 주로 진출하고 있던 화학유기물 무역업체 A사는 케냐 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적인 접촉을 하였으나, 완제품에서 중간재로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이 변화하는 과도기이기도 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 방법을 통한 수출이 어려워 온라인 지사화 사업 및 화상상담 등을 통하여 비대면 바이어 발굴을 시도하였으나 논의만 이뤄지고 수출로 이어지지 않았음
- '22년 말 주요 전시회 대리 참가 및 경제 활성화에 따라 KOTRA 나이로비 무역관은 수입 빅데이터 DB를 통해 실질적으로 제조능력을 갖고 있으며 직수입에 대한 수요가 있는 바이어를 발굴, 인콰이어를 제공함. 바이어 측에서 케냐 정부의 제조업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기대로 폴리우레탄의 재료인 TDI 수입 증대를 결정함
- 해당 기업은 케냐의 수출 성공을 바탕으로 인근국 우간다, 소말리아도 신시장 개척을 하였으며, 광역 지사화 및 광역 디지털 마케팅 사업에 참여,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음

나. 투자 진출

■ 한국 기업 투자 동향

- 한국의 쾰케냐 투자 진출은 코로나 이후 EDCF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건설업 투자 건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건수가 신고되지 않았음
 - '22년에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분야 투자가 2건, 신고 금액은 5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나, 투자 금액은 집계되지 않았고 이는 엔지니어링사들의 연락사무소의 진출
 - '23년에는 제조업 투자 1건, 도매 및 소매업 투자 1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분야 투자가 1건으로 총 3건 신고, 신고 총액은 2만 7,000달러, 그 중 도매·소매업 투자금은 7,000달러로 조사됨
- 케냐 과학기술원이 '24년 개교를 앞두고 있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관련 분야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EDCF 차관 후속 사업들이 예정됨에 따라 건설업, 엔지니어링, 공공행정 분야에서 진출이 이뤄질 전망

〈쾰케냐 한국 기업 투자 동향〉

(단위: 건, 개, 백만 달러)

구분	2021	2022	2023
투자금액	-	-	0.007
누적투자금액	10	10	10.007
누적법인수	31	31	32
신고건수	1	2	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및 시사점

-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기업들의 현지 법인과 지사들이 철수하였으며, 주로 진출 비용 과다, 복잡한 현지 행정 절차, 독과점 구조의 산업구조에 따른 결과물 창출 애로로 철수하는 경우가 많음
- 기존 거래선 확장이 어려운 경우나 현지 진출을 위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지사를 축소하고 현지 거래선 관리 체제로 유지하며 동아프리카에서는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하고 있는 케냐 거래선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

- 한국과 케냐 양국의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해나감에 따라 EDCF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현지 진출하여 MDB나 케냐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안정적인 현지 진출 기반 모색 필요

■ 투자 진출 성공 사례 : EDCF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현지 진출

한국 기업 투자 진출 성공 사례

- 업종 및 수주 프로젝트 : 건설업,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사업
 - 한국 정부가 EDCF를 통해 케냐 교육부를 지원하는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사업'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된 국내 굴지의 건설기업 A사는 현지 지사를 설립하고 10여 명의 인력을 파견해 시공사업 진행 중
 - 이는 한국 건설기업이 케냐에 진출한 첫 번째 사례로 건설업의 케냐 진출 노하우 축적, 설계·엔지니어링·감리 등 건설 패키지 진출, 한국의 우수한 건설자재와 스마트 건축 시스템을 현지에 도입하는 등 향후 한국 건설 기업 진출의 모멘텀을 조성

다. 협력 유망 분야

■ 케냐 과학기술원 '24년 개교에 따른 관련 산업 협력 강화

-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R&D 시설, 농업·바이오·스마트팩토리 등 주요 분야를 클러스터화하여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
 - 농생명공학과의 연계한 EIPP 사업을 진행하여 케냐에 스마트팜 개념을 도입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추후 케냐를 동아프리카 거점 지역으로 활용
 -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케냐의 바이오 R&D 시설 이전이 검토 중, 공동 연구·생산 위탁 등 지역 내 백신 및 복제약 공급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 가능
 - 케냐 과학기술원과 DMC를 주축으로 한 인큐베이션 파크를 조성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해 한국 기업의 추가 진출 기회 확보
- 추후 과학기술원을 통하여 한-케냐 교육 협력 강화 및 한국 진출기업들의 우수 현지 인력 수급 등 교육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 지원 강화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명)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사업
- (사업목표) 과학기술 중심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화 촉진 및 국가경쟁력 향상
- (사업기간/예산) '17~'23년, 총 94.7백만 달러
- (규모/위치) 연면적 35,000m², 콘자 기술혁신도시(Konza Technopolis) 內
- (관리주체) 콘자 개발청(KoTDA)

□ 주요 내용

- (교육시설 건립) 6개 학부*를 위한 강의실·실험실 등 교육시설, 대학본부·도서관·카페테리아 등 행정 지원시설, 기숙사·교직원 숙소 등 신축
 - *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ICT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농생명공학
- (기자재 공급) 교육·실험 기자재 및 일반 기자재 공급 및 설치
- (교육훈련) 국내 초청 교육, 개교 후 전문가 파견을 통한 운영·유지 지원 예정

■ 한-케냐 수교 60주년 기념,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추진 등 정상외교 활용

- '24년은 한-케냐 수교 60주년이자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해로 중요한 경제 협력 기회가 많음
 - 케냐의 주요 정책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ICT, 제조업, 바이오 의료, 농업 위주로 프로젝트를 재구성하여 상호호혜적 경제 협력 추진할 전망
 - 케냐 대통령 방한('22.11월) 이후 추진력을 얻었던 콘자 스마트시티화를 고도화, 한국 기업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항 준비 예정
 - 인증제도 교류, EPA 등 신규 통상정책 추진 등 양국 간의 협력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므로 케냐 시장에 맞는 프로젝트 발굴 필요

2024년 협력 유망 분야

▶ 양국 정부 관심 사업인 콘자 테크노폴리스 융복합 사업

- ① 콘자 테크노폴리스 내 DMC 인프라 건립사업 추진 및 관련 산업 진출 협력(수은, KIND, 한국 기업 투자 등 사업화 가능성 존재)
- ② 콘자 테크노폴리스 ITS 및 BRT 인프라 시공 및 모델하우스 건설 추진
- ③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및 장기 교류 사업 추진, 전문가 초빙 교육
- ④ '24년 이후 콘자 운영 펀드를 활용한 콘자 테크노폴리스 활성화,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 보건·의료 분야 역량 강화

케냐 정부의 의료·바이오산업 육성 의지. AfCFTA 시행 시 경쟁우위에 있을 산업으로 선정

- ① 의료 및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 ② 백신 및 바이오 제조산업 기술 이전
- ③ 의료기기 인증 관련 기술 협력 방안
- ④ 원격의료, e-헬스 등 보건 분야 협력 방안 구축

▶ 산업단지 조성사업 협력, 산학 연계 제조업 역량 확대

케냐가 관심을 가지는 로컬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과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글로벌 파트너링을 함께 담는 win-win 형태 협력 가능

▶ 케냐 전자정부 구축

- ① 전자정부 진행 경과(정책·시스템), 담당 기관의 거버넌스, 향후 도전과제 등 케냐 전자정부 관련 종합적인 현황을 평가하고 개선
- ② 전자정부를 위한 보안 솔루션, 교통 통제 시스템 구축 등 추가 아젠다 개발 및 진출 지원

▶ 농업 현대화를 위한 산업 협력

- ① 스마트팜 도입 마스터플랜, 현대식 농기계 도입, K-라이스 벨트 등 케냐의 농업 현대화
- ② 농업 현대화 및 농민 소득 증대 사업에 발맞춰 한국 프로젝트 진출 및 관련 제품 수출 추진

Chapter



진출전략



- ※ 경쟁국과 차별화하기 위한 품질·신뢰 우선의 마케팅, 수요 맞춤형 제품 수출
- ※ 상호호혜적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정상외교 및 통상정책 활용
- ※ 루토 정부의 핵심 정책 산업인 농업, 제조업, ICT, 건설 분야 우선 진출

1 PEST 분석

P 정치정책 (Political)	• 집권 1년 차 정국 혼란이 있었지만, 집권당(케냐 환자 연합)과 야당(아지미오 라 우모자) 간 평화협정 이후 정국 혼란 해소 • 루토 정부는 경제 불균형 해결, 비즈니스 환경 개선, 산업 생산성 향상에 중점,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 IMF와 협력하여 재정 및 부채 관리 강화, 재정법 시행 및 정부 지출 감소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세제 혜택 부여 및 규제 완화 등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
E 경제 (Economic)	• '23년 GDP 성장은 건축 재정 및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로 전망치 하회 예상되지만, '24년부터 산업구조 개혁, 디지털화, 관광 회복, PPP를 통한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24~'27년 동안 높은 수입 의존도로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를 위해 보호무역과 같은 수출 장려 정책을 추진 • 케냐 중앙은행(CBK)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율과 대출금리의 안정을 전제로 금융 정책 추진을 예고, '24년에는 실질 GDP 성장 회복과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전망
S 사회문화 (Social)	• '23년 초에는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 활동이 둔화되었으나, 하반기에는 회복되는 추세 • 높은 금리는 케냐 국민의 부채 상환 부담을 높이고 가계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케냐 중앙은행(CBK)의 금리 인하가 전망됨에 따라 가계 소비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의 연령이 매우 낮지만 80% 정도 인구의 소득수준이 연 5,000달러 미만으로 필수재에 대한 수요만 증가
T 기술 (Technological)	• 디지털/ICT 인프라 구축,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허브가 되는 것이 목표 • 케냐 정부는 e-모빌리티를 중요한 사회경제적 전환 요소로 보고 각종 세금 혜택, 환급 정책을 통해 전기차 도입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은 케냐의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의료 분야와 기업 데이터 분석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IMF 편당, 국제 기후변화 대응 기조에 따라 전력을 100%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후 전력 인프라를 보완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산업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

〈케냐 시장 SWOT 분석〉

강 점(Strength)

- 확실한 품질의 정확한 납품 주기 및 수출 프로세스로 신뢰도 높음
- 케냐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업 중간재 공급 및 기술 경쟁력 보유
- 다자 공여국들의 인프라 개발 지원 자금 활용한 프로젝트 개발 경험 풍부

약 점(Weakness)

- 주요 제조업 생산품이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 비해 가격경쟁력 취약
- 한-케냐 간 정기선 부족 및 정기 물량 확보 애로에 따른 높은 물류비용과 배송 기간
- 기계 및 중장비류 수출 시 현지 A/S 지원 및 부품 조달 등에 불리

기 회(Opportunity)

- 미국, EU 등 주요 수출시장과의 관세협정 및 AfCFTA로 제조업 생산기지 진출 기회
- IMF, WB 등 차관 도입으로 프로젝트 추진 기회 활발
- 한-케냐 수교 60주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를 통한 협력 기회 다대

위 험(Threat)

- 상대적으로 비싼 물가와 인프라 이용 비용, 불안정한 전기·상수도 공급
- 프로젝트 진출 시 현지 기업이 30% 지분 참여를 해야 하는 등 외국 기업에 차별 존재
- 부패한 정부와 불안정한 치안, 견고한 기득권 세력으로 사업 추진 불확실성 높음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정상외교를 활용한 현지 프로젝트 진출 • 제조업 육성 수요에 맞는 품목 타깃 마케팅 • 현지 진출 고려한 품질 우선의 차별화 전략	품질 및 신뢰 우선 마케팅 전략 구축
ST 전략 (차별화 전략-강점 활용)	• 대표 품목에 집중, 시장 진출 후 맞춤형 제품 수출 • 중진국 진출 경험으로 상호호혜적 진출전략 수립	통상정책, 정상외교 맞춤형 프로젝트 개발
WO 전략 (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단순 제조업 선제적 진출 및 물류거점으로 활용 • 프로젝트 연계 수출을 통한 안정적 거래선 확보 및 점유율 확보 전략 수립	농업, 제조업, ICT 등 유망 산업 우선 진출
WT 전략 (방어/철수-위험 대응)	• 현지 기업과 합병 등을 통한 지사 설립을 통해 물류 및 통관조건 열세 극복할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	합병 등을 통한 현지 지사 설립 진출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4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건설·제조업	향후 5년간 서민주택 25만 호 보급 추진, 낙후된 도시 인프라 개선, 스마트시티 건설 및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 케냐 대통령 방한(22.11월) 이후, 관련 후속 사업으로 한국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인센티브 제공 및 수출 활동 지원 강화 추세
농축산업	농축산업의 현대화(자동화)*를 통한 영세 자영농들의 소득 증대 및 동물 복지를 통한 식자재 품질 개선.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식품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루토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분야 * 케냐 인구의 4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자동화 비율은 20%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케냐 농림부)
의료·보건	케냐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 기조에 맞춰 보건소 확대, 국민의 말라리아·HIV 예방 강화, 종합병원 및 간이 검진센터 설립 및 설비 수입, 운영 노하우와 기술 교류를 통한 영유아·성인 질병 예방·치료 시설 현대화 수요 다대
친환경 에너지	국가 에너지 대부분을 친환경 원료에서 생산하며 지열,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유지보수에 대한 수요가 있음. 특히, 수자원 개발에 대한 케냐 정부의 의지에 따라 댐 건설, 관개, 용수 전반에 진출 기회
ICT	콘자 테크노폴리스, 디지털미디어시티 개발 및 나이로비 서부·남부 간선도로 지능형 교통 체계(ITS) 구축, 스마트팜, e-커머스 구축·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기술 교류 프로젝트 확대

시장 수요 연계 우호적 관계 형성	① 케냐 정부의 '중점 육성 희망 산업 분야별 정책*' 및 관련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맞춤형 제품 마케팅 및 기술 교류 추진 * 과학기술 혁신, 농가소득 증대, 보편적 복지, 서민주택 보급 확대, 제조업 육성 등 ② 단순히 제품을 납품하거나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닌 후속 지원(관리 노하우, A/S 등)까지 고려하여 중·장기적 거래선 관리 필요
-----------------------	---

3-1. 건설·제조업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향후 5년간('23년~) 서민주택 25만 호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케냐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Finance Bill 2023 2차 법안은 지난 9.1일부 본격 발효*, 주택부담금 및 프로젝트 관련 인센티브 신설하고 소비세 등 세율을 조정할 예정
* 3차 재정법은 '24.1월 시행 예정으로 투자 유치 인센티브, 부동산 활성화 등 내용 포함
- 공공-민간 파트너십 추진, 인프라 개선사업을 통한 건설 경기 붐 유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건설업(엔지니어링, 장비), 비철금속 등 건설 기자재 분야 진출 유망
- 제조업 인센티브가 전반적으로 강화됨, 경제특구(SEZ) 투자 진출 시 최초 10년간 각종 수수료, 부동산 양도 차익 등을 감면하거나 면세하는 등 혜택을 대폭 강화
-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정부 ODA 프로젝트 연계·관련 사업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유리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Finance Bill 2023 법안 내 주택부담금 도입으로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 비중이 확대 (2%→50%), 이를 위해 자금 조달과 국민주택기금이 운영될 예정
 - 또한 댐, 관개수로, 도로 확충 등 인프라 조성 프로젝트에 약 16.8억 달러를 배정하고, 10만 개의 단기 일자리 창출 도모 정책 발표
- 케냐 정부의 4대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제조업 견인'
 - 제조업의 GDP 기여도('21년 8%→'22년 4.9%)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를 10% 수준까지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
 - '23/'24년 예산 중 제조업에 약 \$1.8억을 배정하여 '22/'23년 예산 대비 9.7%p 증액되었으며 47개 카운티에 산업단지를 조성
 - 식품 가공, 패키징, 건축 기자재, 제지, 섬유, 화학소재 부문이 특히 수혜를 입을 전망(완성재보다 중간재·원료 납품이 유리)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케냐의 금속 부문(철강 및 비철)은 제조업에서 약 13%의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 제품이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로 사용이 확대될 전망
 - 케냐 철강 시장에서는 주로 제련을 위한 평판, 고순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케냐에서 생산되지 않음. 일본, 한국 등이 특정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등 굉장히 제한적

- 시장 가격을 조사해 납품가를 설정하고 품질 경쟁력까지 갖춘다면 시장 진입 및 거래선 관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음
- 특히 가드레일용 철강, 열간 압연 코일, 지붕·자동차·비행기 몸체, 주방 장비 제조, 파이프, 와이어, 철강 바를 포함한 상품·원료(중간재)는 케냐 철강/비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Finance Bill 2023 발효에도 혜택을 받는 종목임
-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자 케냐 제조업·건설 기자재 원료에 해당하며 가격과 품질 모두 고려하여 품질 강화를 통해 경쟁국과 차별화해야 할 필요

3-2. 농축산업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Vision 2030'과 '신정부 5개 국정과제' 모두에 '농업 현대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케냐 정부는 주력 육성 산업으로 농축산업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선정하였음
- ODA 사업, 정부 조달 사업,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 활용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농업 현대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며 관개수로, 농기계, 스마트팜, 비료, 종자, 농업 소모품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르는 전반에서 수요 지속 증가 전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농업은 케냐의 최대 산업이자 경제 인구의 40% 이상이 종사하는 산업
 - 올해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기후변화로 생산량이 감소, 식품 안보 위기 심화
 - 생산·품질·유통·관리 프로세스의 자동화·현대화 추진 전략 필요
- 유·무상 원조 사업, 개발은행 차관 도입,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활용, 국제기구 사업 활용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조달 루트 개발이 필요
 - 케냐 농업부는 농축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 파트너 물색 중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농업 자동화·현대화를 위한 농기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개수로, 생산 혁신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과 관련 인프라, 기계·기술·제품 등 수요 증대 전망

- 농기계와 관개수로는 대규모 정부 조달이 예정되어 있는바, 원조 프로그램을 수주하거나 차관, PPP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면적당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친환경 비료, 비료 제조공장, 동물 백신, 항생제 등 분야 진출이 유망
 -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상 생산량 확대에 기여하는 농업용 소모품 진출도 유망
- 케냐는 고부가가치 농작물인 커피, 차, 마카다미아 등 견과류 작물 경작의 촉진 정책 시행
 - 작물 맞춤형 기계, 패키징 기술, 종자 관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진출 유망

3-3. 의료·보건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케냐 정부의 Big 4 아젠다 중 보편적 복지(공중 보건위생 강화) 정책에 부응하여 지방 정부들의 종합병원, 간이 검진센터, 보건소 등에 대한 구축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의료기기·의약품 수입, 기술 교류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
- Finance Bill 2023의 발효로 보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면세조건을 갖춘 전문병원 건립 및 설비 납품을 위한 품목일 경우 기존 16%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서 면세로 변경됨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케냐 보건부, 관련 공공기관은 보편적 복지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자금(ECDF)을 활용해 콘자 스마트시티 중심으로 보건사업 추진 희망
 - 백신 공장 설립, 인프라 구축, 백신 공장 운영 관련 제품 발주·기술 교류, 약품 제조·생산라인 운영·보관·발주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노하우를 얻고자 함
- 수요 구체화, 적합한 파트너 발굴 등 협력의 기초 단계로서 KOTRA 나이로비 무역관은 관계부처·기관 수요에 기반해 기업을 발굴하고 현지 진출 지원을 강화할 예정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폐렴구균 복합 백신(PCV), 소아 복합 백신(DTP-HepB-Hib), 영유아(0~3세) 예방접종 제품 전반(결핵,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파상풍, 홍역, 말라리아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음

- 백신 원산지에 따라 사립 병원에서 약 5,000 케냐 실링(40달러 수준)으로 접종할 수 있지만 서민에게는 부담되는 가격인바 단가 설정 시 신중할 필요
 - Finance Bill 2023 법안에 의하면 의료·바이오 분야에서 비처방용 단순 소매, 경구용 의약품(완성품)은 부가가치세가 높아지겠으나, 전문 병원과 호르몬제 등 정부 조달을 통해 승인을 얻은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 적용
- 케냐 보건부, 의료기기·약품관리공사(KEMSA), 의약품·독극물관리기구(PPB), UN 등 국제기구의 조달 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수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필요
 - 현지의 일부 사설 기구들은 비즈니스 파트너나 에이전트를 확보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오히려 시간·자원을 낭비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시장 특성상 공공사업을 통해 사업에 진입한 후 발굴된 기업·에이전시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

3-4. 친환경 에너지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국가 중장기 플랜인 'Vision 2030' 정책 중 그린뉴딜, 탄소배출권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인프라 조성 지원 정책을 활발히 시행 중
-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전력 정책을 시행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 아프리카 최초이자 최대의 지열 발전소인 울카리아 발전소를 보유·운영 중이며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이 풍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케냐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으로서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활용한 발전량이 거의 없고, 아프리카의 최초이자 최대의 울카리아 지열 발전소를 필두로 하여 수력·풍력·태양광 등 다양한 에너지를 일반 주택부터 산업 부문까지 두루두루 활용 중
- 국가 전략인 'Vision 2030'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원만 활용한 에너지 보급률 100% 달성,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탄소 배출량 30% 수준까지 감축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음

- 전 세계적인 친환경 움직임에 케냐는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을 도모,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받아 저조한 전기 보급률 개선을 위해 노력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Vision 2030 전략 중 특히 에너지 산업 부문은 Finance Bill 2023 정책 발효로 인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
 - 동 법안으로 액화석유가스(LPG), 태양광·리튬이온 배터리, 바이오매스 중간재·원자재, 전기자전거·버스·오토바이, 관련 원천기술·원료에 부과되던 8~16%의 부가가치세를 0%로 전면 조정('23.9.1일 발효)
-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에 입찰 참여하거나 개별 에너지원(off-grid)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포트폴리오를 구축 및 제시하고 관련 제품을 납품하며 진출 가능
-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진출 기회가 많음
 - 주거·상업용 건물을 건축 시 태양광 패널·에너지 시스템 설치가 필수
 - 올카리아 지역에서 아프리카 최대 지열 발전소 운영
 - 개별 거점 풍력 발전 건설 계획 확대 예정

3-5. ICT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케냐의 도시는 대부분 '60년 경에 도시 교통 시스템을 설계·구축하여 교통 인프라가 낙후
 - 교통 인프라 낙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4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한국수출입은행은 세계은행의 지능형 교통 통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총 400개의 우회로 중 약 100개를 교차로로 변경, 교통 종합 관제센터 설립 사업은 '21년부터 본격화
- 콘자 스마트시티 내 디지털 콘텐츠·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설립이 진행 중
 - 자국 문화산업 육성, 콘텐츠·디지털 역량 강화,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 물류체계 등 프로젝트 진행 중
- Finance Bill 2023 법안 발효에 따라 케냐 정부 및 조세기관(KRA)을 중심으로 한국의 유니패스 시스템을 롤 모델로 한 신규 관세·조세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기술 자문에 대한 수요 증가세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17년부터 유상 ODA(EDCF) 사업의 일환으로 콘자 스마트시티 건립지 내에 한국 KAIST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 중
 - '19년에는 기관 설계 및 교과 과정 컨설팅 등도 진행하였으며, '20년 초부터 시공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지연되어 '21년 착공(진행 중)
- 지능형 교통 통제 시스템(ITS) 사업, 나이로비 시내버스 전용노선화 사업(BRT), 스마트 가로등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ITS 사업은 케냐 내 총 400여 개의 원형 우회로를 교차로로 교체하고 교통 종합 통제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세계은행이 약 300개, 한국수출입은행이 EDCF 자금을 활용해 100개의 교차로를 구축하고 통제센터 건립을 지원함
- KOTRA 나이로비 무역관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사업(EIPP, '22년~)을 통해 케냐의 도시·인프라 스마트화를 위한 정책 제언·연구·기술교류 사업을 추진
 - 관련 국내 기업 및 기관을 유치·지원하고 있으며, '24년도에는 교통·인프라, 스마트팜, 에너지, e-거버넌스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콘자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국내 시공사, 건설기자재, ICT 관련 제품·기술 등의 현지 진출 확대 기대
 -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단순 인프라 건설에서 ICT 기술 융복합으로 분야가 확대되어 우리 기업의 진출 활로를 열어줄 전망
- 추후 케냐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디지털화 진행을 위한 협력 강화도 예상되므로 문화 콘텐츠, ICT 관련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교육 행사나 컨소시엄 구성 시 적극적인 참여 필요
- e-TIMS 시스템을 시작으로 정부 서비스의 80%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e-거버넌스' 구축 예정이며 e-Health, e-Office(우리나라 정부24 앱과 유사) 등을 중심으로 조세 관리, 결제 등 주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비철금속 (고순도 알루미늄, 아연, 스크랩 등 관련 원료 중심)	선정사유	주택부담금 도입으로 정부 주도 주택 공급 비율 확대(2%→50%)를 위한 자금 조달과 국민주택기금 운영 예정. 댐·수로 개발, 도로 확충 등 인프라에 약 16.8억 달러를 배정. 건설업의 GDP 기여도 유지. 10만 단기 일자리 창출 도모 정책 발표
	시장동향	케냐의 금속산업(철강, 비철)은 제조업의 약 13%를 차지. 이 분야의 대다수 제품이 건설산업에서 사용됨. 케냐의 철강 시장은 주로 장품 및 고순도, 플랫폼 제품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들 제품은 케냐에서 생산이 안 되며 생산이 가능한 곳도 일본, 한국 등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 제한적. 연간 압연 코일, 지붕 슬레이트 및 자동차·비행기 몸체 및 주방 장비 제조와 같은 다른 산업에서도 활용되는 등 도시 현대화 정책에 맞춰 다양한 곳에서 수요가 발생
	경쟁동향	브랜드 파워를 갖춘 기업(러시아, 미국, 일본 등)과 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도, 중국)을 중심으로 시장 양분화
	진출방안	Finance Bill 2023으로 인해 일부 철강 제품의 부가가치세가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원료 중심으로는 면세 내지 16% 이내 유지. 단 이번 법안으로 바이어의 가격, 결제조건이 기존보다 더 간간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와 거래선 관리가 필요. 특히 고순도 비철 수입 수요가 있는 거래선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품질에서 강점을 갖출 필요
품목명 2		
기초 석유·화학물질 (원료)	선정사유	케냐는 산업용 화학물질을 연간 약 3만 톤 정도 수입하는데 산업·제조업 용도의 화학물질(원료)은 여전히 무관세로 케냐에 수출이 가능
	시장동향	플라스틱, 화장품·식품 패키징, 생활용품 제조용 원료, 건설 기자재, 바닥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경쟁동향	중동의 Borouge와 Sabc 같은 기업들이 주요 경쟁사이며, 한국 등 경쟁국들의 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과 빠른 운송 시간(9~15일)을 경쟁력으로 갖추고 있음
	진출방안	인콰이어리 발굴 및 성약 직전 단계에 운송 시간 단축을 위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 필요. 결제조건에 대해서는 바이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필요(한 번 신뢰가 깨지면 거래선이 쉽게 바뀔 수 있음)
품목명 3		
건설·기계류 (유압 브레이커, 굴삭기 등)	선정사유	정부 주도 주택 공급 비율을 2%→50%로 증대시키고,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활성화에 따라 인프라 개선 등 건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시장동향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00% 수입에 의존하는 시장
	경쟁동향	주로 중고품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국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인도, 중국산의 공급이 과반 이상을 차지
	진출방안	EDCF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한국 시공사와 현지 발주처 간 협력관계 구축 등

품목명 4		
건설·기자재 (알루미늄 거푸집, 파이프라인 등)	선정사유	정부 주도 주택 공급 비율을 2%→50%로 증대. 모기지 활성화 예정에 따라 주거용·상업용 건설 시장 수요 증대
	시장동향	주거용 거푸집은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열려 있으나, 주거용 시장의 수요는 저가형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차별화 필요. 파이프라인은 평면도(레벨)가 셀링 포인트로 납품 후 유지보수 문제로 인해 품질 민감성이 높음
	경쟁동향	저가형은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급형은 유럽산과 중국계 건설자재 소싱이 대부분
	진출방안	PPP 또는 EDCF 프로젝트에 기반해서 한국 제품의 진출을 확대.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세미나나 전시회 개최 시 적극적인 참여 필요
품목명 5		
농기계 (트랙터, 색채 선별기 등)	선정사유	루토 신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현대화를 선정, 농업 생산량 증가를 위한 자동화 기계 수요가 증가할 전망
	시장동향	현재 케냐의 농업 자동화율은 30%로, 향후 5년 동안 50%로 증대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농기계 현대화가 예고되고 있음
	경쟁동향	브라질, 인도 등 농업 대국과 경쟁 구도에 있으며, 농기계 부품은 중국, 인도산 중고가 및 저가 제품이 시장을 주도
	진출방안	품목 차별화를 통한 종합적인 비즈니스 모델 제시 필요(A/S, 교육 등 밸류체인 전반). 정부 간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인지도 제고
품목명 6		
섬유 (직물, 원단, 중고의류 등)	선정사유	케냐는 아프리카 아래 지역에서 중고의류 및 관련 섬유 수입 규모가 큰 국가 중 하나로서, 케냐 국립통계국(KNBS)의 2022 경제 조사에 의하면 케냐는 중고의류를 당해에만 177,664톤 수입했으며 이는 약 1억 3,6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 이러한 결과는 케냐에서 관련 산업 및 육성에 대해 큰 관심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시장동향	케냐 시장에서 판매되는 중고의류는 원료 품질이 균일하지 않고, 제조업 확대를 위해 자국에서의 생산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품질 관리가 일관되지 않아 패키징-원료-품질 3가지 요인을 갖춘 거래선 발굴에 대한 수요가 있음
	경쟁동향	현재 중국, 인도가 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납품하고 있으나, 품질이 낮고 패키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제품을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래선을 교체하려는 수요가 많음(우리 제품 납품 시에도 패키징에 특히 유의 필요할 것)
	진출방안	Finance Bill 2023 정책으로 인해 케냐가 수입하는 중고의류나 섬유에 대한 관세는 이전보다 증가할 전망. 그러나 학교, 영유아 관련 납품처 혹은 공공 조달시장을 통해 진출할 경우 면세 가능. 또한, 케냐 내에서 가공하는 섬유 원단·원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법안의 틈새를 공략하는 전략 필요
품목명 7		
	선정사유	수입 제지 완성품에 대한 세금 증가로 가격 상승, 수입선 대체와 자국 내 완성품 제조 수요 증가로 중간재(원료) 및 기술, 인프라 수입 수요 증가 전망

제지 (인쇄, 필기, 위생용 등 전반의 원료)	시장동향	케냐는 Finance Bill 2023 정책을 통해 제조업 부문 수출분담금, 소비세 등 비관세장벽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할 전망. 다만, 수입 대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발효하면 수입 물가만 오를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제지원료, 완제품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경쟁동향	완성품은 중국, 인도, 브라질산 등 저가 상품이 중심이 되고 원료는 미국, 영국산 제품이 주로 수입됨
	진출방안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완성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출부담금이 신설됨. 중·장기적으로 단가 상승이 야기될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최종재인 포장지나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 제조에 활용되는 제지(중간재 부문) 및 고급 제지 생산을 위한 기술 교류(무체물 수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품목명 8		
태양광 및 리튬이온 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부문 관련 제품	선정사유	케냐 정부의 제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분야 육성 정책 등으로 수요가 계속하여 증가할 전망
	시장동향	한국, 중국, 인도산이 가격대에 따라 다른 종류의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산 수요가 지속 증대됨
	경쟁동향	제조업 경기 활성화 전망에 따라 기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저가 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대, 저가 공세 압박
	진출방안	LPG, 태양광, 전기버스·자전거·오토바이 등 친환경 제품을 취급하는 에이전시를 발굴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
품목명 9		
축산업 및 관련 분야 종사자를 위한 각종 수입 중간재 (동물복지, 동물사료 등 관련 제품)	선정사유	동물 사료 제조를 위해 현지에서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중간재 또는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 16%에서 면세로 정책 변경
	시장동향	농업 자동화와 농축산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케냐 농림부 및 에너지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제품 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면세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추세
	경쟁동향	시장 초기 형성 단계로 현지인과 현지 정부 간 관련 제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정부는 수입 중간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지인들은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활용 인프라가 제한적)
	진출방안	현지 에이전시를 발굴하여 파트너십 형태로 진입하고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 하는 전략 활용 가능. 정부의 공공조달과 ODA 사업을 활용하여 진출
품목명 10		
의료기기 및 의약품 (백신, 항생제, 당뇨, 기타 호르몬 치료제)	선정사유	정부의 공중보건위생 강화 정책에 부응하여 지방정부들이 주요 도시에 중소 규모 병원 신설을 추진. 이에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
	시장동향	케냐 정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국립/지방 병원에 의료장비 대여 사업을 진행 중. 5개 정도의 글로벌 브랜드 에이전트가 정부와 함께 대여사업 진행
	경쟁동향	유럽, 미국 등의 브랜드 파워를 가진 제품들이 대형병원에 주로 납품되고 있으며 인도, 중국 등 초저가 제품은 인증 취득 애로 문제로 암시장 형성
	진출방안	보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면세조건을 갖춘 전문병원 건립 및 설비 납품을 위한 품목일 경우 기존 16%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서 면세. 따라서 공공기관 및 관련 에이전시 활용하여 면세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진출 용이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인프라 건설 엔지니어링·감리	선정사유	기후변화 및 낙후된 시설로 인하여 농업생산량 감소, 수자원 개발에 대한 케냐 정부의 수요 증가,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선정 유력 산업
	시장동향	인프라 건설은 유·무상 원조에 따라 건설되고 있으며 PPP 사업을 통해 2개의 댐이 건설 중에 있음
	경쟁동향	초창기 건설된 댐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가 건설.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건설
	진출방안	건축박람회 등을 통한 B2B 홍보로 현지 파트너 발굴, B2G 시장 진출(현지 프로젝트 입찰공고 지원, 국내 공공기관 주도의 컨소시엄 공고에 지원 등)
품목명 2		
교통 인프라 (통합 교통 통제 시스템 중심)	선정사유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는 '60년대에 설계되어 도시교통 시스템의 낙후가 심각. 교통 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월 400만 달러 이상
	시장동향	세계은행 등 자금 지원으로 경전철, 도심 대중교통 현대화 등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콘자 스마트시티, 뭄바사 고속도로 등 주요 거점시설에 대한 개선 수요가 커서 개선 수요가 많으며, 국내의 EIPP 등 사업을 통해 F/S 진행 준비 중
	경쟁동향	일본, 독일의 ODA 자금 활용 및 현지 파트너십을 통한 통합 교통 통제 시스템 F/S 등 시행
	진출방안	관련 분야에 우리 정부의 경험자금 확대 예정,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 필요
품목명 3		
스마트팜 (종자 활용, 기술, 운영 노하우 등)	선정사유	케냐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는 프로젝트 또는 개발 공여국가의 보조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추진 시 면세 혜택 부여
	시장동향	케냐의 콘자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스마트팜 운영 노하우에 대한 기술 교류 수요 증대
	경쟁동향	미국·EU(노르웨이 중심)·일본의 종자 활용 기술, 스마트팜 운영 노하우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관심도 높음
	진출방안	현재 케냐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 간 진행되고 있는 콘자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EIPP)에 관심을 갖고 스마트팜 분야 연구, F/S 착수 시 컨소시엄 참여 고려, 관련 제품·기술 교류회 참가 고려 등 기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
품목명 4		
e-거버넌스 시스템	선정사유	인터넷 통신망 확대 및 신규 조세 정책, e-TIMS 도입에 따른 아날로그 정보의 디지털화, 관리·감독 효율화,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수요 증가 전망
	시장동향	케냐는 디지털 하이웨이 정책을 통해 지방까지 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예고. 보편적 인터넷 보급을 목표로 한국 유니패스 시스템을 롤 모델로 컨설팅 수요 수요 존재
	경쟁동향	미국과 인도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케냐에 진출, 디지털 콘텐츠 및 시스템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NGO들도 자국 디지털 콘텐츠 보급 등을 추진
	진출방안	유·무상 ODA(KSP, EIPP 등), e-거버넌스 관련 프로젝트 컨소시엄 참여, 관련 장비 납품 등을 통한 정부조달 고려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시기/장소(잠정)
① 수출 지원 (마케팅)	내수·초보기업 수출 지원	연중
	케냐 주요 산업 수출·거래선 관리 지원(지사화 연계) - 실수입 데이터 기반 맞춤형 바이어 발굴 - 아프리카 광역 디지털 마케팅 시행·인콰이어리 발굴 등	연중
② 행사 참관 (경제 협력)	유망 전시회 개별 참가·면담 대행 지원	유망 전시회 연계 (하단 리스트 참조)
	한-케냐 수교 60주년 행사 연계 세미나·로드쇼	미정
	한-케냐 수교 60주년 행사 연계 서울푸드 국가관 참가 지원	5월
	한국 주간 행사 연계 대중소 기업 콜라보 로드쇼	10월
③ 개발 협력· 프로젝트	경제혁신 파트너십 사업(EIPP) 시행	연중
	KSP 발굴,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	연중
	농업, 의료, 제조업 등 주요 프로젝트·투자 진출 지원	연중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한-케냐 수교 60주년	'24.2.7	
케냐 독립 61주년	'24.6.1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Finance Bill 3차 법안 발효	'24.1.1	
'24/'25 예산안 발표	6월 중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Africa Agri Expo	2.19~20	농기계, 비료, 종자 등 농업 분야 전반
Propak East Africa	3.12~14	플라스틱, 패키징(음식), 비닐 등 화학소재 분야
Med Expo	4.17~19	의료기기, 헬스케어 제품 등
Build Expo Africa	6.5~7	건설기계, 원료(철강·비철), 스마트 건설 기술 등 건설기자재 분야 대표 전시회
Agritec Africa 2024	6.12~14	농기계, 비료, 종자 등 농업 분야 전반 케냐의 농업 분야 대표 전시회
Auto Expo Kenya	7.3~5	자동차, 전동기기 부품
Kenya International Trade Exhibition	7월 중	산업 전반
BIG 5 Construction Exhibition	11월 중	건설, 건축기자재 전시회
Food Agro Kenya	11.20~22	식음료, 호텔 서비스, 프랜차이즈 등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엄익현	관장	나이로비 무역관	+82-70-7735-9010	ikhyun.eom@kotra.or.kr
2	서영상	과장	나이로비 무역관	+82-70-7735-9560	yseo@kotra.or.kr
3	고운정	과장	나이로비 무역관	+82-70-7735-9561	ko.uj@kotra.or.kr
4	진상현	대리	나이로비 무역관	+82-70-7735-9009	sanghyun.jin@kotra.or.kr
5	문희원	사원	본사 아시아중야팀	+82-2-3460-7661	clairexmoon@kotra.or.kr

2024 케냐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